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후원미사는 19일, 10월 후원미사는 17일, 11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6년 7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3,762,139	전월이월금	3,143,439
지 로	3,178,640	우리은행	6,390,340
국민은행	4,665,370	하나은행	1,131,130
조흥은행	115,010	신한은행	1,490,190
외환은행	712,590	제일은행	215,030
농 협	1,400,340	기업은행	805,060
우 체 국	65,000	저정기탁	45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3,4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885,000	운영비 등
저정기탁금	저정기탁	450,000	신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2,830,000	잔액(이월금)	932,139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6. 8 / 제2호

펴낸날 2016. 8. 22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애끓은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자비의 얼굴 6항).

가톨릭 신자들은 자비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은 자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인도해 줍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약령에 사로잡힌 아이들을 해방시키실 때 예수님의 일관되고도 특별한 태도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신다' 는 점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한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만지시고, 다독이시며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적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연결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자비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베푸는 자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자비는 자선이나 시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슬픈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나면 신자들은 자선 단체의 후원자가 되거나 주일 봉헌금의 액수를 늘립니다. 이렇게 자선을 한 후에는 보통 기분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뭔가 좋은 일을 실천했다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그들과는 다른 지금 나의 처지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에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선 역시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엔 인격적인 차원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경우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가 옵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일 같지가 않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넘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넘어지게 만드는 돌들을 치우는 일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얼마 전 교황님께서 하느님께서 역사책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에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사소한 일상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자비실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성북정보도서관의 후원으로 5월 17일부터 시작한 '다문화 찾아가는 북스타트' 교육을 7월 7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0~3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결혼이민 엄마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 엄마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게 책 읽는 방법도 배우고 자녀의 정서나 한국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베트남공동체 캠프*

필리핀공동체는 7월 16~17일에 140명이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로, 베트남공동체는 7월 30~31일에 93명이 강원도 양양 물치 해수욕장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와 같은 개인여가 시간이 없는 이들에게 이번 캠프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일하며 쌓인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필리핀공동체
▲ 베트남공동체

베들레헴어린이집



▲ 살구수확



▲ 물놀이

남미공동체 페루 독립기념일 행사*

페루의 가장 큰 기념일로 1532년 스페인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1년 7월 28일 완전한 독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페루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지 195주년 되는 해입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전차와 군인들이 주축인 군사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페루의 독립을 기념하며 남미공동체에서는 지난 7월 24일 일요일에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미사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많은 남미 가족들이 참석하여 페루독립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소식지 개편

2002년부터 발행한 이주사목위원회 소식지 '두손모음'이 2016년 7월호부터 '좋은이웃'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루카 복음서 10장 33-37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소식지를 개편하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화알림



ABOUT Vietnam 베트남*



- 공식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기후 / 열대몬순성기후
- 인구 / 93,421,835명 (2014년, 세계14위)
- 수도 / 하노이
- 기념일
 - 1월 새해 (1일)¹⁾
 - 2월 설날 (음력1월1일)
 - 3월 흥왕건국일 (음력3월10일)²⁾
 - 4월 사이공 해방 기념일 (30일)³⁾
 - 5월 노동절 (1일)
 - 9월 독립기념일 (2일)⁴⁾

1) 설날(음력 1월 1일)

베트남 최대의 명절로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지인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준다. 설 음식인 반땃을 먹으며 새해를 시작한다.

2) 흥왕건국일(음력 3월 10일)

베트남 건국시조인 흥왕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전국 각지에서 수 만명이 흥왕 사원에 모여 민족 최초의 국왕인 흥왕을 기리며 흥왕의 건국 공로에 대한 사의를 표한다.

3) 사이공 해방 기념일(4월 30일)

북부 해방군 전차가 사이공의 심장부인 통일굴 철책을 뚫고 들어가 베트남 총통 증방민의 항복을 받아낸 날로 30년간 계속됐던 베트남 전쟁이(1964.8~1975.4.30) 종식되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부패한 남부 자본주의 정권을 몰아내 남북통일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4) 독립기념일(9월 2일)

1945년 호찌민 주석이 바딘 광장에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 설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베트남공동체*

베트남공동체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소속된 국가별 공동체로 현재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웬반하오 신부가 담당자제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공동체의 공소가 6호선 보문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문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베트남 공동체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매주 일요일 정오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결혼이민자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이다.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의 수는 약 150~180명 정도이다. 가정미사와 성사(세례, 혼배, 병자), 예비자교리와 혼인교리, 그리고 정기적인 피정과 성서교육으로 이주 노동자와 봉사자들의 개인적 영적성장을 돕고 있다.